

전주시 '희망더드림 안심 연장' 추진

전북신용보증재단·7개 시중은행, 사업 연장 위한 협약 체결... 원금 상환기간 최대 8년 연장·3% 이자 지원키로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지원한 전주시가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 8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27일 전북신용보증재단 2층 교육장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7개 시중은행(전북, KB국민, 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시가 금융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1700억 원 규모로 시행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에 이어, 기존에 받았던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줌으로써 경영난 해소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 대상은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과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년 이상 이용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



전주시는 27일 전북신용보증재단 2층 교육장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7개 시중은행(전북, KB국민, 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전주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인이 해당된다.

기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과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상환기간은 각각 4년·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전주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의 상환

방식은 최대 8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주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8

년간 3% 이자를 지원하게 되며, 초기 1년은 전북특별자치도 2% 전주시 1%를 부담하며, 이후부터는 전주시가 2%, 전북특별자치도가 1%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보증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 지점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가뭄의 단비처럼 경제 위기 속의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이런 연장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소기업의 위기 해소와 성장·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전주시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참여 금융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금암1·2동 통폐합·송천1동 분동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전주시, 내달 5~15일까지 ARS·모바일웹·대면조사 등 주민 여론조사 실시 예정

전주시가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동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여론조사에 앞서 통폐합 및 분동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홍보자료를 제작해 지난 25일 열린 4개 동(금암1·2, 송천

1·2) 통장회의에서 180여 명의 통장들에게 모든 세대에 배포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주민 홍보자료에는 △통폐합 필요성 △주민 지원방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숙원사업 우선 추진)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주민센터 접근성에 대한 대책 △주민 여론조사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과 주민 지

원방안, 분동 찬·반 의견, 경계안, 동명칭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분석한 후, 오는 8월 중 여론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자생단체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행정구역 조정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금암동 전북특별자치도보훈회관에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암1·2동 통폐합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과정과 통폐합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이번 홍보자료 제작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시는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 1만 미만 소규모 동 중 1983년 분동돼 역사적 동질성이 높은 금암1·2동에 대한 통폐합과 현재 인구 6만5,000명에 육박한 송천1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평화1동, 독거가구 마음치유를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 실시

저소득 독거가구 15명 대상... 반려동물 건강관리 교육·사료비 구입 쿠폰 제공 등

전주시 평화동 주민센터(동장 이미영)는 지난 26일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가구 1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3만원 상당의 사료비구입 쿠폰을 지원했다.

이날 교육은 이노동물병원 김찬우 원장이 반려동물의 응급상황 대처법, 건강관리 및 펫티켓 등에 대한 전반적

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사료비 구입 쿠폰 외에 전주시 동물정책과 협조로 야광목줄, 배변봉투 등 반려동물 편의용품도 추가 지원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정모씨는 "반려견을 키운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몸에 해로운 음식물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되었던 사료비 지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화1동 관계자는 "요즘 홀로 지내는 단독세대가 특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이 많아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펫티켓,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독거가구 마음치유를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평화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며 홀로 사는 저소득 가구에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펫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3만원 상당의 사료 구입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도 총 3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관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옥기 기자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의장 후보 남관우 의원·부의장 후보 최주만 의원 선출

제12대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들을 선출했다.



민주당 소속 남관우 의원



최주만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이날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에서 남관우 의원을 신임 의장 후보로, 부의장에는 최주만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 경합에는 남관우 의원이 16

표, 최명철 의원이 13표를 얻었다.

28일에는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문화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민주당 투표에서 남관우 의원을 신임 의장 후보로, 부의장에는 최주만 의원에 출마해 전체 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김옥기 기자

노후 상수관 정비로 깨끗한 수도물 공급

전주시, 서신동·삼천2·3동 일원의 상수관 교체공사

전주시 삼천동과 서신동 일대의 주거·상업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시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서신동과 삼천2·3동 일원 주거·상업지역의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맑은물공급사업은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배수지에서 공급된 수도물에 대한 요구 부과 수량)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전주시 전역의 블록시스템 구축 및 655km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했으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480억을 투입한 2단

계(1차~3차) 사업을 통해 효자동과 우아동 등 전주시역 121km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04억 원을 투입해 서신동과 삼천2·3동 일원의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 35km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병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 사업 구간 내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 진행 전 각 가정에 공사 일정에 대한 전단지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임시 급수시설을 설치해 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군산시청 공무원 간 성추행 시도... 조사 중

군산에서 공무원 간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시청 공무원 A(30대)씨가 직원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 직원인 B(30대·여)씨와 평소 좋지 않았던 사이를 해

소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져 화해를 했지만 술자리가 끝난 후 A씨가 B씨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